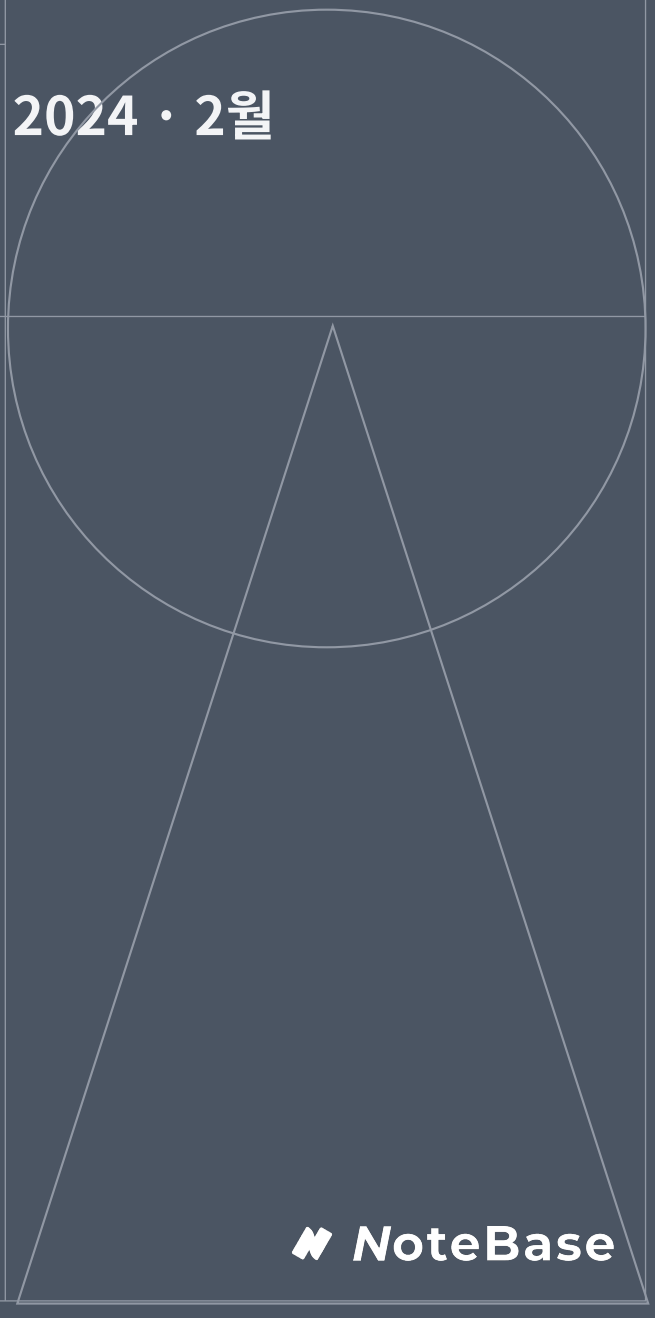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국어 · 2024 · 2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국어 · 2024 · 2월

공무원/서울시/9급 · 국어 · 2024 · 2월

문 1. 가장 올바른 문장은?

① 그는 생명을 무릅쓰고 아이를 구했다.

② 아버지, 무슨 고민이 계신가요?

③ 네가 가리키는 곳은 서울역으로 보여진다.

④ 그의 간절한 소망은 입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소망은'에 **'합격하는 것이다'**가 이어져 무엇을 바라는지 서술하므로, 주어와 서술어가 자연스럽게 호응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무릅쓰다'는 어려움이나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이므로 '생명'과는 의미상 어울리지 않는다. '그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를 구했다.' 또는 '그는 생명을 걸고 아이를 구했다.'로 고친다.

② X: 높임의 대상은 아버지이고, '고민'은 아버지와 관련된 일이다. 사람의 존재를 직접 높이는 '계시다' 대신 **간접 높임인 '있으시다'**를 써야 한다. '아버지, 무슨 고민이 있으신가요?'로 고친다.

③ X: '보이다'는 '보다'의 피동사인데, 여기에 '-어지다'를 덧붙인 '보여지다'는 **피동 표현이 중복**된다. '네가 가리키는 곳은 서울역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④ O: 주어 '그의 간절한 소망은'에 서술어 '입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가 자연스럽게 호응한다. '입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바라는 일을 명사처럼 나타낸 표현이며, 여기에 '이다'가 붙어 **소망의 내용을 설명**한다.

NoteBase

문 2. <보기>의 밑줄 친 단어에 대한 뜻풀이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이번 행사에 응모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책이 출판된 뒤 그는 독자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질정을 받았다.
• 각계의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발언을 당장 중지하십시오.

① ㉠ '소정의'는 '작은'이라는 뜻이다.
② ㉡ '질정'은 '칭찬하거나 찬양함'이라는 뜻이다.
③ ㉢ '비등하다'는 '물이 끓듯 떠들썩하게 일어나다'라는 뜻이다.
④ ㉣ '호도하다'는 '그릇된 길로 이끌다'라는 뜻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비등하다'는 **물이 끓듯 떠들썩하게 일어나다**라는 뜻이다. '각계의 여론이 비등한'은 여러 사람의 의견이나 목소리가 거세게 일어나는 상황을 나타낸다.

선지별 해설

① X: ㉠의 '소정'은 **정해진 바**라는 뜻이다. '소정의 상품'은 응모자에게 주기로 정해진 상품을 가리키며, 상품의 크기나 양이 작다는 뜻은 아니다.

② X: ㉡의 '질정'은 **꾸짖어 바로잡음**이라는 뜻이다. 문맥에서는 독자들이 책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바로잡아 준다는 의미이다. '격려'와 나란히 쓰였어도 '질정' 자체가 칭찬이나 찬양을 뜻하지는 않는다.

③ O: ㉢의 '비등하다'는 **물이 끓듯 떠들썩하게 일어나다**라는 뜻이다. '각계의 여론이 비등한'은 여러 사람의 의견이나 목소리가 거세게 일어나는 상황을 물이 끓는 모습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④ X: ㉣의 '호도하다'는 명확하게 결말을 내지 않고 **일시적으로 감추거나 흐지부지 덮어 버리다**라는 뜻이다. 문맥에서는 사건의 본질을 가리는 발언을 중지하라는 의미이다. '그릇된 길로 이끌다'는 '오도하다'의 뜻이다.

NoteBase

문 3. 단어의 표준 발음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장대비[장대삐/장댇삐]

② 장맛비[장마삐/장맏삐]

③ 안간힘[안깐힘/안간힘]

④ 효과[효▨과/효▨꽈]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장대비'는 **[장때비]**로 발음한다. '장대'의 'ㄷ'이 된소리 [ㄸ]로 나고, '비'의 'ㅂ'은 된소리로 바뀌지 않으므로 [장대삐/장댇삐]는 표준 발음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장대비'의 표준 발음은 **[장때비]**이다. '장대' 자체가 [장때]로 발음되며, 여기에 '비'가 결합해도 'ㅂ'을 [ㅃ]으로 발음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시된 [장대삐]와 [장댇삐]는 모두 [장때비]로 고쳐야 한다.

② O: '장맛비'는 사이시옷 뒤의 'ㅂ'을 **된소리 [ㅃ]**으로 발음한다. 표준 발음법 제30항에 따라 사이시옷을 따로 소리 내지 않는 [장마삐]가 원칙이고,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장맏삐]도 허용된다.

③ O: '안간힘'은 **[안깐힘/안간힘]**이 모두 표준 발음이다. '안'과 '간힘'이 결합한 합성어로서 뒷말의 첫소리 'ㄱ'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안깐힘]과 함께,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 현실 발음 [안간힘]도 인정된다.

④ O: '효과'는 **[효▨과/효▨꽈]**가 모두 표준 발음이다. [효▨과]가 원칙이며, 현실 발음을 반영하여 'ㄱ'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효▨꽈]도 허용된다. 두 발음 모두 첫음절 '효'를 길게 발음하며, '▨'는 장음을 나타낸다.

NoteBase

문 4. <보기>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소설이나 희곡 따위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독자에게 암시하는 것.

① 葛藤
② 隱喩
③ 伏線
④ 反映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독자에게 **미리 암시하는 장치**를 '복선(伏線)'이라고 한다.

공통 해설

복선(伏線)은 소설이나 희곡에서 **뒤에 일어날 사건의 단서를 앞부분에 미리 제시**하는 장치이다. 보기의 '앞으로 일어날 사건'과 '미리 독자에게 암시'가 이 개념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인물이 초반에 주운 열쇠가 후반에 중요한 문을 여는 데 쓰인다면 앞서 제시된 열쇠는 복선으로 기능한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였던 단서가 뒤의 사건과 연결되면서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다.

NoteBase

문 5. <보기>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철은 세균을 포함한 거의 모든 생명체에 들어 있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다. 하지만 사람의 몸 안에 든 철은 다 합쳐도 3g 정도에 불과하다. 철의 절반 이상은 적혈구에 분포하고 산소를 운반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간에도 1g 정도가 들어 있다. 해독 작용에 철 원소가 필요한 까닭이다. 오래된 적혈구를 깨는 비장에도 철이 많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적혈구에서 나온 철은 혈액을 따라 골수로 운반되고 혈구 세포가 만들어질 때 거기에 다시 들어간다. 철은 쉼 없이 순환하지만 소화기관을 거쳐 몸 안으로 들어오는 철의 양은 하루 1~2mg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그만큼의 철이 매일 몸 밖으로 나간다. 하루에 빠져나가는 1.5g의 각질에도 철이 들어 있다.

① 세균에도 철이 들어 있다.

② 철은 주로 소화기관의 작용을 돕는다.

③ 간 속에 든 철은 해독 작용을 돕는다.

④ 적혈구 속의 철은 산소 운반에 관여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소화기관은 철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로 제시되었을 뿐, 철이 소화기관의 작용을 돕는다고 설명하지 않았다. 글에서는 철의 절반 이상이 적혈구에 분포하며 **산소 운반**을 맡는다고 했다.

선지별 해설

① O: 글의 첫 문장에서 철은 '세균을 포함한 거의 모든 생명체'에 들어 있다고 했다. 따라서 **세균에도 철이 들어 있다**는 이해는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② X: 글에서 소화기관은 철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경로**로 제시된다. 철이 소화기관을 거쳐 들어온다는 사실을 철이 소화기관의 작용을 돕는다는 뜻으로 바꿀 수는 없다. 글에 따르면 철의 절반 이상은 적혈구에 분포하여 산소 운반을 맡는다.

③ O: 간에 철이 1g 정도 들어 있는 이유를 '해독 작용에 철 원소가 필요한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간 속의 철이 **해독 작용을 돕는다**는 이해는 글의 내용에 부합한다.

④ O: 철의 절반 이상이 적혈구에 분포하고 산소를 운반하는 중책을 맡는다고 했다. 이는 적혈구 속의 철이 **산소 운반에 관여한다**는 뜻이다.

NoteBase

문 6. <보기 1>을 <보기 2>에 삽입하려고 할 때 문맥상 가장 적절한 곳은?

<보기 1>
그런데 괴델의 불완전성에 대한 증명이 집합론을 붕괴로 이끌지 않았다. 마치 평행선 공리의 부정이 유클리드 기하학을 붕괴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기하학의 탄생과 부흥을 가져왔던 것처럼, 공리계의 불완전성은 수학자의 작업이 결코 종결될 수 없음을 뜻했다.

<보기 2>
미국의 수학자 코엔은 칸토어의 연속체 가설과 선택 공리라는 잘 알려진 공리가 집합론의 공리계에 대해 결정 불가능한 명제라는 것을 증명했다. 이로써, “산술 체계를 포함하여 모순이 없는 모든 공리계에는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존재하며 또한 그 공리계는 자신의 무모순성을 증명할 수 없다.”는 괴델의 정리는 수학의 가장 기초적인 영역인 집합론 자체 안에서 수학적 확증을 얻게 된다. (①) 결정 불가능한 명제, 진리가 끝나기에 수학이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반대로 진리라는 이름으로 봉인되었던 기존의 체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수학이 시작되는 지점이 되었다. 이런 결정 불가능한 명제는 주어진 공리계 안에서 참임을 증명할 수 없는 명제지만 반대로 거짓임을 증명할 수도 없는 명제다. (②) 다시 말해 그 공리계 안에서 반드시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 명제다. 따라서 이런 명제를 공리로 채택한다면 그 공리계 안으로 포섭할 수 있다. 모순을 일으키지 않으니 차라리 쉬운 셈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추가해야만 한다. (③) 이처럼 결정 불가능한 명제를 공리로 추가한다고 그 공리계가 완전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로운 공리계에 대해서도 또다시 결정 불가능한 명제가 있다는 것이 괴델 정리의 또 다른 의미이기 때문이다. (④)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보기 1>의 '그런데'는 불완전성이 확인되었다는 앞의 내용에서 **그것이 집합론의 붕괴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으로 전환한다. 마지막의 '수학자의 작업이 결코 종결될 수 없음'은 뒤의 **'새로운 수학이 시작되는 지점'**과 이어진다.

NoteBase

핵심 풀이

①: 앞부분에서는 코엔의 증명을 통해 괴델의 정리가 집합론 안에서 확증되었다고 설명한다. 여기에 <보기 1>이 들어가면, '그런데'가 불완전성의 확인에서 **불완전성이 지닌 생산적 의미**로 논의를 전환한다. 평행선 공리의 부정이 새로운 기하학으로 이어졌다는 비유도 수학이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어지는 '수학자의 작업이 결코 종결될 수 없음'과 '새로운 수학이 시작되는 지점'은 같은 방향의 내용이므로 앞뒤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②: 앞에서는 결정 불가능한 명제를 참임도 거짓임도 증명할 수 없는 명제로 설명하고, 뒤에서는 '다시 말해'로 그 의미를 풀어 쓴다. 이 사이에 <보기 1>을 넣으면 **설명과 재진술의 연결**이 끊어진다. 이 부분은 명제의 성격을 설명하는 문장들이 바로 이어져야 한다.

③: 앞의 '중요한 사실을 하나 추가해야만 한다'는 뒤에 나올 내용을 예고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 불가능한 명제를 공리로 추가해도 공리계가 완전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보기 1>은 집합론의 붕괴 여부와 수학의 지속 가능성을 말하므로, 여기에 넣으면 **예고와 그 구체적 내용** 사이를 가로막는다.

④: 이곳은 새로운 공리계에도 결정 불가능한 명제가 남는다는 설명까지 마친 자리이다. <보기 1>을 넣으면 불완전성이 수학의 종결을 뜻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뒤늦게 제시하게 된다. 그 내용은 앞서 나온 '새로운 수학이 시작되는 지점'을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하므로, 그 문장 앞인 ①에 놓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NoteBase

문 7. 음운 변동 가운데 음운의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① ‘낮’이 [낟]으로 발음될 때

② ‘줍다’가 [줍□따]로 발음될 때

③ ‘많다’가 [만□타]로 발음될 때

④ ‘나뭇잎’이 [나문닙]으로 발음될 때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많다[만□타]'에서는 **ㅎ과 ㄷ이 하나의 ㅌ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일어난다. 한 음운이 다른 한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와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교체는 한 음운이 다른 한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고, 축약은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음운이 되는 현상이다.

① O: '낮'의 받침 ㅈ이 ㄷ으로 바뀌어 [낟]으로 발음된다. 음절 끝에서 발음할 수 있는 대표음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른 교체이다.

② O: '줍다'에서 받침 ㅂ 뒤의 ㄷ이 된소리 ㄸ으로 바뀌어 [줍□따]로 발음된다. **된소리되기도 교체**에 해당하며, ㄸ은 자음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음운이다.

③ X: '많다'의 겹받침 ㅀ 중 ㅎ이 뒤의 ㄷ과 합쳐져 ㅌ이 되므로 [만□타]로 발음된다. ㄴ은 그대로 남으며, **ㅎ + ㄷ → ㅌ은 교체가 아니라 축약**이다. 두 음운이 하나로 합쳐지므로 음운 수가 하나 줄어든다.

④ O: '나뭇잎'에는 ㄴ 첨가와 함께 교체도 일어난다. '뭇'의 ㅅ과 '잎'의 ㅍ이 각각 ㄷ과 ㅂ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고, '잎' 앞에 ㄴ이 첨가되어 [나묻닙]이 된다. 이어 ㄴ 앞의 ㄷ이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를 거쳐 [나문닙]으로 발음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는 모두 교체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8.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① 선생님께서는 한동안 집에 머무르셨다.
② 사진으로 젊은 시절의 어머니 모습을 보았다.
③ 음식에는 간을 알맞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④ 오랜 시간 항상 나에게 힘이 되어 주어서 고맙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머무르셨다'는 일정한 곳에 머무르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나머지 밑줄 친 단어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며, '알맞게'처럼 부사어로 쓰여도 **품사는 형용사**이다.

선지별 해설

품사는 단어의 문법적 성질에 따른 분류이고,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 맡는 역할이다. 용언이 관형어나 부사어로 쓰이더라도 활용 어미가 붙었다는 이유로 품사가 바뀌지는 않는다.

① '머무르셨다' — 동사: 기본형은 '머무르다'이다. 일정한 곳에 한동안 남아 있는 움직임을 나타내므로 **동사**이다. 높임과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가 붙어도 동사라는 품사는 유지된다.

② '젊은' — 형용사: 기본형은 '젊다'이다. 나이가 한창인 상태를 나타내므로 형용사이다. 관형사형 어미 '-은'이 붙어 '시절'을 꾸미는 관형어로 쓰였지만, **관형사로 바뀐 것은 아니다**.

③ '알맞게' — 형용사: 기본형은 '알맞다'이다. 일정한 기준이나 조건에 잘 맞는 상태를 나타내므로 형용사이다. 어미 '-게'가 붙어 뒤의 '하는'을 꾸미는 부사어로 쓰였지만,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의 활용형**이다.

④ '고맙다' — 형용사: 남이 베푼 호의나 도움에 대해 흐뭇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 상태를 나타내므로 **형용사**이다. 이 문장에서는 그대로 서술어로 쓰였다.

②·③·④는 모두 형용사이고 ①만 동사이므로, 품사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①이다.

NoteBase

문 9. <보기 1>의 문장에 이어질 <보기 2>의 (가)~(라)를 문맥에 맞게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1>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시민의 의무일까?

<보기 2>
(가) 이 역시 법의 외형을 띠었다.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정당해 보이는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안전과 질서라는 말은 인권을 제한하는 만능 논리로 사용되었고 권력자의 뜻에 따른 통치를 용이하게 만들었다.
(나) 한국도 그런 부정의한 시대를 겪었다. 대표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무효화시키고 인혁당 사건을 비롯해 대규모 인권침해를 초래했던 유신시대의 헌법과 긴급조치를 떠올려보자.
(다) 대체로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부당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도 시민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라) 법이 부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나치의 반유대인 정책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등 법을 통해 부정의한 사회질서가 만들어지고 집행된 경험을 통해 충분히 깨달았다. 역사는 그런 부정의한 법을 집행한 사람을 전범이라는 이름으로 재판하고 처벌하기도 했다.

① (나) - (가) - (다) - (라)
② (나) - (라) - (가) - (다)
③ (다) - (라) - (나) - (가)
④ (라) - (가) - (나) - (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보기 1>의 질문에 먼저 (다)가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이어 외국의 부당한 법 사례를 든 뒤, (나)의 **'한국도'**로 국내 사례를 연결하고 (가)의 **'이 역시'**로 그 사례의 문제점을 설명한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다) → (라) → (나) → (가)

(다): <보기 1>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시민의 의무인지 묻는다. (다)는 대체로 따라야 하지만 부당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도 시민의 책무라고 답하므로, **질문에 직접 답하는** 첫 문단이다.

(라): (다)에서 제시한 '부당한 법과 질서'를 구체화한다. 나치의 반유대인 정책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를 들어, **법을 통해서도 부정의한 사회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나): **'한국도 그런 부정의한 시대'**에서 '도'는 앞서 다른 나라의 사례가 나왔음을 전제하고, '그런'은 (라)의 부정의한 사회질서를 가리킨다. 따라서 외국 사례를 제시한 (라) 뒤에 놓여 유신시대의 헌법과 긴급조치라는 국내 사례를 덧붙인다.

(가): **'이 역시'**는 바로 앞 (나)의 유신시대 헌법과 긴급조치를 받아, 그것도 법의 외형을 띠었음을 설명한다. 이어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라는 명분이 인권 제한과 권력자의 통치에 이용되었다고 서술하여, (나)의 국내 사례가 부정의한 이유를 구체화한다.

NoteBase

문 10.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자와 가획자는 조음 기관의 모양을 공유한다.

② 순음은 가획될수록 음성학적 강도가 더 세진다.

③ 'ㅿ(반치음), ㄹ(리을)'은 가획자가 아닌 이체자이다.

④ 'ㆁ(옛이응), ㆆ(여린히읗)'은 조음 기관을 단순히 상형한 것이 아니라 그 자음이 발음되는 순간의 조음 기관을 상형한 것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발음되는 순간의 조음 기관을 상형'했다는 설명은 **ㄱ·ㄴ**에 해당한다. ㆁ은 ㅇ의 모양을 달리한 **이체자**이고, ㆆ은 ㅇ에 획을 더한 **가획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가획은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같은 계열의 다른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를 만드는 원리이다. 따라서 기본자와 가획자는 **기본자가 본뜬 조음 기관의 모양**을 공유한다. 예를 들어 ㅁ에서 ㅂ·ㅍ을 만들었으므로 이 글자들에는 입술 모양이라는 공통 바탕이 있다.

② O: 순음은 입술소리로, ㅁ → ㅂ → ㅍ의 순서로 획을 더하였다.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서는 이를 **소리가 더 세어지는 관계**로 설명한다. ㅁ은 코로 공기가 흐르는 소리이고, ㅂ은 입술을 막았다 터뜨리는 소리이며, ㅍ은 거센소리이다.

③ O: ㅿ(반치음)과 ㄹ(리을)은 각각 이와 혀의 모양을 본뜨되, 기본자 ㅅ·ㄴ과 형태를 달리한 **이체자**이다. 글자에 획이 더 있는 것처럼 보여도 소리가 더 세어지는 관계를 나타내는 가획자는 아니다.

④ X: ㆁ(옛이응)은 ㅇ의 모양을 달리한 이체자이고, ㆆ(여린히읗)은 ㅇ에 획을 더한 가획자이다. 두 글자를 발음 순간의 조음 기관을 직접 본뜬 글자로 설명할 수는 없다. **발음할 때의 혀 모양을 본뜬 기본자는 ㄱ·ㄴ**이다.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ㄴ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다.

NoteBase

문 11. <보기>에서 밑줄 친 부분의 한자가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보기>
<u>백</u>척간두, 명명<u>백</u>백, <u>백</u>해무익, <u>백</u>중지세

① 백척간두, 백해무익
② 백척간두, 명명백백
③ 명명백백, 백중지세
④ 백해무익, 백중지세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백 척 높이의 장대 끝을 뜻하는 '백척간두'와 온갖 해만 있고 이로움이 없다는 '백해무익'은 모두 **百(일백 백)**을 쓴다.

보기별 해설

백척간두(百尺竿頭): '백'은 **百(일백 백)**이다. 백 척이나 되는 높은 장대의 끝이라는 뜻으로, 매우 위태롭고 어려운 지경을 비유한다.

명명백백(明明白白): 밑줄 친 '백'은 **白(흰 백)**이다. 의심할 여지가 없이 아주 뚜렷하다는 뜻이며, 수를 나타내는 百과는 다른 한자를 쓴다.

백해무익(百害無益): '백'은 **百(일백 백)**이다. '백해'는 온갖 해를 뜻하며, 해롭기만 하고 이로운 점이 전혀 없다는 말이다.

백중지세(伯仲之勢): '백'은 **伯(맏 백)**이다. 맏이와 둘째를 뜻하는 '백중'에서 나온 말로,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형세를 이른다.

밑줄 친 한자가 百으로 같은 것은 '백척간두'와 '백해무익'이므로 ①의 묶음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2. <보기>의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마침 공(公, 홍판서를 가리킴)이 또한 월색(月色)을 구경하다가 길동의 배회함을 보고 즉시 불러 문왈(問曰): "네 무슨 흥이 있어 야심(夜深)토록 잠을 자지 아니하난다?"
길동이 공경(恭敬) 대왈(對曰): "소인이 마침 월색을 사랑함이어니와 대개 하늘이 만물을 내시매 오직 사람이 귀하오나 소인에게 이르러는 귀하옴이 없사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오리잇가. …… 소인이 평생 설운 바는 대감 정기(精氣)로 당당한 남자 되었사오매 부생모육지은(父生母育之恩)이 깊삽거늘 그 부친을 부친이라 못하옵고 그 형을 형이라 못하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오리잇가."

① 신화나 전설에서 발견되는 영웅의 일대기와 상통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② 주인공은 천상인(天上人)의 하강으로 태어나 하늘의 도움을 받는다.
③ 적서 차별, 농민 저항과 같은 당대 사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④ 이후 『임꺽정』이나 『장길산』과 같은 의적소설로 계승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홍길동은 홍판서와 춘섬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로, **천상인이 하강한 존재가 아니다**. 하늘의 도움을 받아 시련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술과 지략**으로 고난을 극복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보기>는 『홍길동전』에서 길동이 서얼이라는 이유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처지를 호소하는 대목이다.

① O: 홍길동은 비범한 능력을 지녔지만 신분 차별과 생명의 위협을 겪고, 이를 이겨 내며 활약하다가 율도국의 왕이 된다. 이러한 전개는 **비범한 인물이 시련을 극복하고 큰일을 이루는** 신화·전설 속 영웅의 일대기 구조와 통한다.

② X: 홍길동은 홍판서와 시비 춘섬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천상에서 내려온 인물이 아니다**. 또한 하늘이나 천상계 조력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술과 지략으로 고난을 극복한다. 초인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만으로 천상인의 하강과 하늘의 도움을 설정한 작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O: 아버지와 형을 제대로 부르지도 못한다는 길동의 호소에는 **적서 차별의 부당함**이 드러난다. 작품 전체에서는 활빈당이 탐관오리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을 돕는 활동을 통해 지배층의 수탈에 대한 민중의 저항과 사회 개혁의 열망도 다룬다. 따라서 개인의 신분 문제와 농민을 비롯한 민중의 현실 문제를 함께 제기한다.

④ O: 의적소설은 부당한 권력과 수탈에 맞서 민중을 돕는 인물의 활동을 그린다. 홍길동의 활빈당 활동에 나타난 **사회 비판과 민중 구제의 지향**은 후대 홍명희의 『임꺽정』, 황석영의 『장길산』 같은 의적소설로 이어진다.

NoteBase

문 13. <보기>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보리밥 풋ᄂᆞ물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횟긋 믉ᄀᆞ의 슬ᄏᆞ지 노니노라
그 나믄 녀나믄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랴

① 不立文字
② 緣木求魚
③ 言語道斷
④ 安貧樂道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화자는 소박한 음식을 먹고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며, 다른 삶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는 **가난한 생활에서도 마음을 편안히 하고 도를 즐기는** '안빈낙도'의 태도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불립문자(不立文字)는 불교에서 말이나 글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으로 진리를 깨닫는다는 뜻이다. 보기에는 언어나 문자의 한계를 넘어 진리를 깨닫는 내용이 제시되지 않는다. 화자는 **소박한 생활에 만족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② X: 연목구어(緣木求魚)는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방법이 맞지 않아 이룰 수 없는 일을 무리하게 추구함**을 비유한다. 화자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리는 소박한 삶을 즐기고 있다.

③ X: 언어도단(言語道斷)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다. 화자는 어떤 상황을 기막히게 여기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다른 일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현재의 삶을 긍정**한다.

④ O: 안빈낙도(安貧樂道)는 **가난한 생활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기며 살아감**을 뜻한다. 보리밥과 풋나물은 화자의 소박한 생활을 보여 주고, 바위 곁 물가에서 실컷 노니는 모습은 그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보여 준다. 마지막 구절에서 그 밖의 다른 일을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마음을 드러낸다.

NoteBase

문 14. 문장의 짜임이 다른 것은?

① 예쁜 꽃이 피었네.

② 누가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래.

③ 그 집에서 오늘 돌잔치가 있어.

④ 모두가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그 집에서 오늘 돌잔치가 있어'는 주어 '돌잔치가'와 서술어 '있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다른 문장들은 문장 안에 절을 포함한 겹문장이다.

선지별 해설

홑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이고, 겹문장은 그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이다. 다른 절을 문장 성분으로 포함한 안은문장도 겹문장에 속한다. 절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도 서술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① 관형절을 안은 겹문장: '예쁜'은 '꽃이 예쁘다'에서 주어 '꽃이'가 생략된 **관형절**로, 뒤의 명사 '꽃'을 꾸민다. 안긴절의 '꽃이 예쁘다'와 전체 문장의 '꽃이 피었네'라는 두 서술 관계가 있다.

② 인용절을 안은 겹문장: '한다고'의 '-고'가 앞의 내용을 **인용절**로 만들어 '그래'에 연결한다. 여기서 '그래'는 '그렇게 말해'라는 뜻으로 쓰인다. 인용된 내용의 서술어 '한다'와 이를 전달하는 서술어 '그래'가 구별되므로 겹문장이다.

③ 홑문장: 주어는 '돌잔치가', 서술어는 '있어'이며,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난다. '그'는 '집'을 꾸미는 관형사이고, '그 집에서'와 '오늘'은 각각 장소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이다. 이들은 별도의 절을 이루지 않는다.

④ 명사절을 안은 겹문장: '따뜻한 봄이 오기'는 명사형 어미 '-기'로 만들어진 **명사절**이며, 여기에 목적격 조사 '를'이 붙어 '기다리고 있지'의 목적어가 된다. '봄이 오다'와 '모두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서술 관계가 구별된다. 또한 명사절 안의 '따뜻한'은 '봄이 따뜻하다'에서 주어가 생략된 관형절로, '봄'을 꾸민다.

①·②·④는 절을 안은 겹문장이고, ③만 홑문장이므로 문장의 짜임이 다르다.

NoteBase

문 15. <보기>의 글쓴이가 바라본 사람들의 인식 태도와 가장 부합하는 속담은?

<보기>
코끼리를 십 보 밖에서 보았는데 그때 동해에서 보았던 것과 방불할 만큼 크게 생겼다. 몸뚱이는 소 같고 꼬리는 나귀와 같으며, 약대 무릎에, 범의 발톱에, 털은 짧고 잿빛이며 성질은 어질게 보이고, 소리는 처량하고 귀는 구름장 같이 드리웠으며, 눈은 초생달 같고, 두 어금니는 크기가 두 아름은 되고, 길이는 한 장(丈) 남짓 되겠으며, 코는 어금니보다 길어서 구부리고 펴는 것이 자벌레 같고, 코의 부리는 굼벵이 같으며, 코끝은 누에 등 같은데, 물건을 끼우는 것이 족집게 같아서 두르르 말아 입에 집어넣는다. 때로는 코를 입부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다시 코 있는 데를 따로 찾아보기도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코 생긴 모양이 이럴 줄이야 누가 뜻했으랴. 혹은 코끼리 다리가 다섯이라고도 하고, 혹은 눈이 쥐눈 같다고 하는 것은 대개 코끼리를 볼 때는 코와 어금니 사이를 주목하는 까닭이니, 그 몸뚱이를 통틀어서 제일 작은 놈을 집어가지고 보면 이렇게 엉뚱한 추측이 생길 만하다.

① 쇠귀에 경 읽기
② 눈 가리고 아웅한다
③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
④ 밤새도록 곡하고서 누구 초상인지 묻는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사람들은 코끼리의 코와 어금니 같은 **일부분에만 주목하여 전체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글쓴이는 이러한 관찰 때문에 코끼리의 다리가 다섯이라거나 눈이 쥐눈 같다는 엉뚱한 판단이 생긴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쇠귀에 경 읽기'는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 주어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글에서 지적하는 문제는 **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태도가 아니라 관찰 범위가 일부에 치우친 태도**이다.

② X: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얕은꾀로 남을 속이려 한다는 뜻이다. 글 속 사람들은 코끼리에 관해 잘못 판단하지만, **남을 속이려는 의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들의 잘못은 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한 데 있다.

③ O: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는 부분에만 얽매여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뜻이다. 글쓴이는 사람들이 '코와 어금니 사이'에 주목하여 코끼리의 몸 전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코를 다리로 잘못 보아 다리가 다섯이라고 하거나, 큰 몸뚱이와 비교해 작은 눈만 부각하는 것은 **부분에 치우친 관찰이 전체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진 사례**이다.

④ X: '밤새도록 곡하고서 누구 초상인지 묻는다'는 일의 근본 내용도 모르면서 그 일에 참여하다가 뒤늦게 묻는 어리석음을 이른다. 이 글의 초점은 **일에 참여한 뒤 그 내용을 묻는 행동이 아니라 부분만으로 대상을 판단하는 태도**에 있다. 따라서 글쓴이가 지적한 인식 태도를 나타내기에는 맞지 않는다.

NoteBase

문 16. <보기>의 시를 발표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가) 풀이 눕는다 /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 풀은 눕고 / 드디어 울었다 /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 다시 누웠다
(나) 처……ㄹ썩, 처……ㄹ썩, 척, 쏴……아. / 때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 태산 같은 높은 뫼, 집채 같은 바윗돌이나, / 요것이 무어야, 요게 무어야. / 나의 큰 힘, 아느냐, 모르느냐, 호통까지 하면서, / 때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다) 그러나 집 잃은 내 몸이여, /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면! / 이처럼 떠돌으랴, / 아침에 젊은손에 / 새라 새로운 탄식을 얻으면서
(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 육첩방은 남의 나라 /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줄 알면서도 /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① (나) - (가) - (다) - (라)
② (나) - (다) - (라) - (가)
③ (다) - (나) - (가) - (라)
④ (다) - (라) - (나) - (가)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는 **1947년에 유고로 발표**되었으므로, 1925년 시집에 실린 김소월의 작품보다 뒤에 놓인다. 김수영의 '풀'은 1968년 발표작으로 네 작품 가운데 가장 늦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나) → (다) → (라) → (가)

(나):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이다. 파도 소리를 흉내 낸 표현과 바다의 힘을 드러내는 구절로 작품을 확인할 수 있다. **1908년 11월** 잡지 '소년' 창간호에 발표된 신체시이므로 네 작품 가운데 가장 앞선다.

(다): 김소월의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면'이다. 집과 경작할 땅을 잃고 떠도는 처지를 노래한 부분이다. **1925년 12월** 간행된 시집 '진달래꽃'에 수록되었으므로 1908년의 (나)보다 뒤에 놓인다.

(라):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는 구절에서 일본 유학 중인 화자의 처지를 확인할 수 있다. **1947년 2월 13일** '경향신문'에 유고로 발표되었으므로 1925년의 (다)보다 뒤에 놓인다. 작품 속 일제 강점기의 상황과 실제 발표 시기를 구별해야 한다.

(가): 김수영의 '풀'이다. '풀이 눕는다'로 시작하며 바람에 나부끼는 풀을 노래한다. **1968년** '창작과비평'에 발표되었으므로 1947년의 (라)보다 뒤이며, 네 작품 가운데 가장 늦다.

NoteBase

문 17.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디지털 컴퓨터가 발명되자, 학자들은 자연 언어와 인공 언어의 관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했다. 현실의 뒤죽박죽인 자연 언어를 단순화하고 분명하게 해서 전반적으로 말끔하게 정돈하려는 노력에 더해, 수학적 논리로부터 얻은 아이디어를 도구 삼아 실제 인간 언어의 복잡성을 (단순히 제거하는 대신에) 분석하기 시작했다. 컴퓨터에 기반한 지능 모델 구축이 목표였던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가 발전하면서 더 대담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논리 그 자체가 우리의 이성을 작동하는 사고 언어의 기초가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언어를 이해하거나 말하기 위해서는 명백히 무질서한 수천 개의 언어 각각을 인간 정신 속에 어떤 식으로든 내재된 하나의 단일한 논리 언어에 대응할 수 있어야만 한다.

① 인공지능의 목표는 지능 모델의 구축이었다.

② 인공지능은 사고 언어를 개발하는 출발이 되었다.

③ 언어의 이해는 언어와 논리 언어와의 대응을 통해 가능해진다.

④ 언어 복잡성의 분석은 수학적 논리를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제기된 것은 **논리가 사고 언어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사고 언어 자체를 새로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보기는 인공지능을 '컴퓨터에 기반한 지능 모델 구축이 목표였던' 학문 분야로 설명한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목표가 **지능 모델의 구축**이었다는 진술은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② X: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논리 그 자체가 우리의 이성을 작동하는 사고 언어의 기초가 되어야만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사고 언어의 **기초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주장**이며, 사고 언어를 새로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은 아니다. 따라서 '사고 언어를 개발하는 출발이 되었다'는 표현은 '논리가 사고 언어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마지막 문장은 언어를 이해하거나 말하려면 수천 개의 언어 각각을 인간 정신에 내재된 **하나의 단일한 논리 언어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언어의 이해가 언어와 논리 언어의 대응을 통해 가능해진다는 진술은 글의 내용에 부합한다.

④ O: 학자들은 '수학적 논리로부터 얻은 아이디어를 도구 삼아' 실제 인간 언어의 복잡성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자연 언어의 복잡성을 단순히 없애려는 데서 나아가 **수학적 논리를 분석 도구로 활용**한 것이다.

NoteBase

문 18. <보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번역에서 가독성이 높다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늘 미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확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독성은 이렇다 할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가독성을 높이려고 번역하기 어렵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생략해 버리고 번역하는 번역가들이 의외로 많다. 또한 쉽게 읽히기만 하면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하는 독자들이 생각 밖으로 많다. 거추장스럽다고 잔가지를 제거해 버리고 큰 줄기만 남겨 놓으면 나무 모습은 훨씬 가지런하고 예쁘게 보인다. 그러나 그 잘라낸 잔가지 속에 작품 특유의 문체와 심오한 의미가 들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원문을 모르고 번역본만 읽는 독자들은 가독성에 속아 '좋은' 번역이라고 평가하기 십상이다.

① 가독성이 좋으면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하는 독자들이 많다.

② 번역가들은 가독성뿐 아니라 정확성도 중요하게 간주하여야 한다.

③ 번역 과정에서 생략된 부분에 심오한 의미가 들어 있을 수도 있다.

④ 번역가들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원문의 내용을 생략하고 번역하기도 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는 원문을 생략하는 목적을 잘못 설명했다. 글에서 일부 번역가들은 **가독성을 높이려고** 어려운 부분을 생략하며, 이 때문에 원문의 문체나 의미가 빠져 정확성이 훼손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글은 쉽게 읽히기만 하면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하는 독자들이 생각 밖으로 많다고 설명한다. 이는 **독자들의 평가 경향**을 나타내며, 글쓴이가 가독성만으로 좋은 번역을 판단해도 된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② O: 글쓴이는 정확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독성은 이렇다 할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번역가는 읽기 쉽게 옮기는 것과 함께 **원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③ O: 글은 나무의 잔가지를 잘라 내는 일에 원문의 일부를 생략하는 일을 빗대고 있다. 잘라 낸 잔가지 속에 작품 특유의 문체와 심오한 의미가 들어 있을 수 있다는 말은, **생략된 부분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④ X: 글에서 일부 번역가들이 어렵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생략하는 목적은 **정확성이 아니라 가독성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로 고쳐야 한다. 이러한 생략은 읽기에는 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작품 특유의 문체나 심오한 의미를 잃게 할 수 있어 글쓴이가 비판하는 대상이다.

NoteBase

문 19. <보기>의 맞춤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① 뱃길
② 잇자국
③ 잿더미
④ 핏기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핏기'는 순우리말 '피'와 **한자어 '기(氣)'**가 결합한 말이다. 따라서 순우리말만으로 된 합성어를 대상으로 하는 보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통 해설

보기의 규정은 구성 요소가 **모두 순우리말**이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합성어에 적용된다. '뱃길'은 '배+길', '잇자국'은 '이+자국', '잿더미'는 '재+더미'가 결합한 말로, 구성 요소가 모두 순우리말이고 앞말 '배', '이', '재'가 모음으로 끝나므로 이 조건을 충족한다.

'핏기'는 순우리말 '피'와 한자어 '기(氣)'가 결합한 말이므로 **순우리말만으로 된 합성어가 아니다**. 앞말 '피'가 모음으로 끝나더라도 보기의 제30항 1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핏기'는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결합한 경우를 다루는 제30항 2에 따라 사이시옷을 적은 올바른 표기이다.

NoteBase

문 20. 밑줄 친 말의 쓰임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오늘도 우체국에 와 너에게 편지를 부친다.

② 그는 쓸데없는 조건을 부쳐 흥정을 해 왔다.

③ 나는 아직도 그에게는 실력이 부친다.

④ 식목일에 부치는 글을 써서 신문에 실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의 '부쳐'는 **'붙여'**로 고쳐야 한다. 흥정에 조건을 더한다는 뜻이므로 '조건을 붙이다'로 쓴다.

선지별 해설

① O: '부치다'는 **편지나 물건을 보내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우체국에서 상대에게 편지를 보내는 상황이므로 '편지를 부친다'가 적절하다.

② X: 흥정에 조건을 더하는 것은 **'조건을 붙이다'**라고 한다. '붙이다'가 활용하면 '붙여'가 되므로, '쓸데없는 조건을 붙여 흥정을 해 왔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부치다'에는 **능력이나 힘이 모자라다**라는 뜻이 있다. 상대에 비해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다는 문맥이므로 '실력이 부친다'가 적절하다.

④ O: '부치다'는 **어떤 행사나 특별한 날을 맞아 의견을 나타내다**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식목일을 맞아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담은 글을 썼다는 뜻이므로 '식목일에 부치는 글'이 적절하다.

NoteBase